

브라질 노동개혁 후 글로벌 공급사슬과 노동 이슈

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바이아연방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부 개발도상국(주로 동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와 남-남 무역(South-South trade)의 상당한 확대에 의해 제조품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중간재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같은 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경제블록의 형성, 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일방적 자유화 조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흥 산업국들의 산업제품 수출 증가, 산업 내 무역 증가, 초무역국가들(supertrading nations)의 출현, 가치사슬의 분화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생산공정 분할을 통한 생산분할 과정에 필연적이다(Baldwin and robert-nicoud, 2004 and 2010).

이러한 변화들은 생산분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가 상품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역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생산분할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생산 자체를 공유하고 최종제품 생산에 관련된 생산활동 중 하나 또는 몇 가지 단계에서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둘러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노동분업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 중 상당수가 디자인, 마케팅, 고객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이 가치사슬의 필

수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로 자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외에도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개혁이 제시되며, 노동개혁은 노동법의 유연화를 목표로 한다. 브라질에서는 2017년에 노동개혁이 진행되었다. 브라질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자는 것이었다.

이 글은 노동개혁 전후 브라질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노동개혁 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개혁 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분석한 후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산영역의 다각화를 가리키며 새로운 조직형태를 등장시켰다. 새로운 조직은 생산과정의 유연화와 지리적 확산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갖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생산을 내재화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활동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산업들이 과거에는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되던 것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분산 및 분할되는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제품 구상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지역이나 공장에서 처리됐던 생산공정이 이제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생산 현장에서 2개 이상의 단계로 분할되고 있다. 생산활동은 국제 생산망에서 세분화되고 확산되며 또 다른 가공을 위해 국가 간 이동하는 중간재와 미완성품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과 더불어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품목에 따라 해당 무역과 관련된 국가들 사이의 위계가 바뀌고 있다. 수입한 중간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본사'로 간주되고 수입한 중간재가 다량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공장'으로 간주된다(Baldwin, 2010; Baldone, Sdogati and Tajoli, 2007).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모든 제품 생산망에서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전문화할 수 있게 되었다(Estevadeordal, Blyde and Suominen, 2012).

글로벌 가치사슬 덕분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생산망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얻는 국가가 있는 한편 손실을 보는 국가들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화는 개발도상국이 국제 노동분업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아시아, 유럽, 북미의 몇몇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세계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OECD(2013)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과정에서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익을 얻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투자 매력도가 가장 큰 곳이 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도 광범위한 국제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 노동개혁 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OECD(2013)에 따르면, 브라질과 남미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브라질과 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지역적 생산통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브라질은 수출품의 해외부가가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약 10% 수준의 후방 참여도(backward participation)를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브라질 경제의 역동성이 낮은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브라질 경제는 폐쇄적이다. 둘째, 브라질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중간재의 국내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참여 비중이 매우 낮다. 셋째, 브라질은 해외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넷째, 브라질의 경제는 여전히 매우 보호주의적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로서 브라질의 기여, 즉 전방 참여도(forward participation)는 20%로 이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브라질이 국제무역에서 기술집약도가 낮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이 지표는 브라질이 세계무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입관세 인하와 같은 포괄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브라질이 세계경제와 통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브라질은 국내 금융시장을 국제 금융시장과 통합하기 위해 금융 자유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브라질 경제의 생산 및 금융 개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 덕분에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2013)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브라질이 자국 경제를 무역과 국제 금융시장에 개방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생산망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크게 편입시키지 못했으며 브라질 경제는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브라질 경제가 세계무역,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주류 연구들은 브라질의 경제개방 과정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잘못되어 생산구조가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고 다른 제조 및 서비스 활동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성장 패턴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 인해 브라질의 제조업은 역동성이 낮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천연자원 집약적인 부문에 특화되어 결국 국가 제조업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지 생산부품이 수입부품이나 제품을 대체하고 더 기술집약적인 생산라인을 포기하면서 브라질 국내 생산수준이 하락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낮은 기술집약도, 높은 노동집약도와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브라질을 국제무역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로 만들었다. 브라질의 수출 성과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크다.

반면 OECD(2013)와 같은 주류 연구는 이처럼 브라질의 입지가 취약해진 데에는 더 깊이 있는 전문화와 더 낮은 운송, 통신 및 거래비용 대한 필요성, 부족한 R&D 투자, 생산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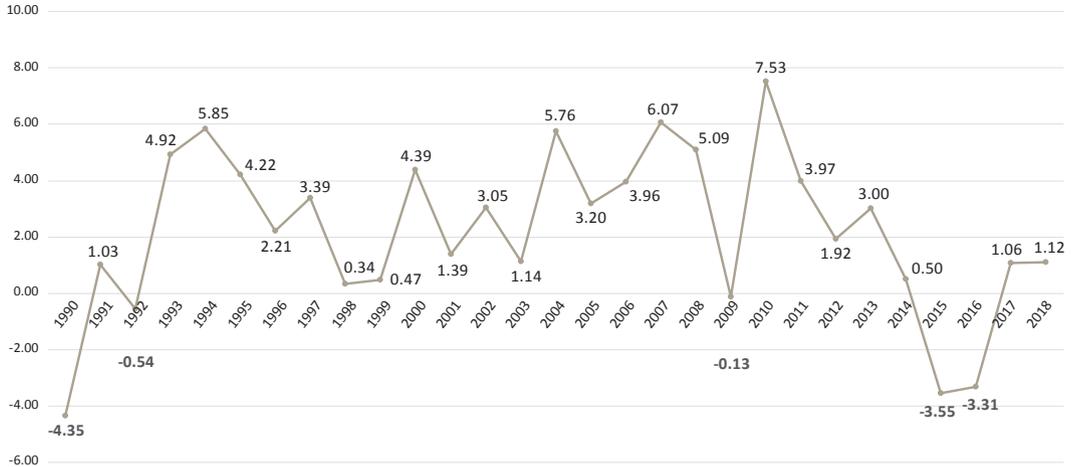
낮은 효율성, 과도한 보호주의에서 벗어난 보다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 취약성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은 민영화, 경제개방 가속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등 구조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주요 조치 중 노동개혁은 주류 연구가 지지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노동개혁 지지자들은 브라질이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국내외 투자 유치, 경제성장 회복, 고용창출, 국내 제조업의 현대화,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브라질은 주로 고용주가 혜택을 받게 될 투자, 성장, 고용증가를 약속하면서 노동법을 완화하는 전면적인 노동개혁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권이 약화되었다.

■ 노동개혁 후 브라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일부 지표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양적인 측면(더 많은 국가로의 수출량 증가)과 질적인 측면(기술집약도가 높은 상품 수출의 증가와 같은 수출품의 질 개선)에 노동개혁이 기여한 바를 살펴봐야 한다. 분석을 위해 많은 지표를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간략한 논의를 위해 네 개의 지표를 살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첫째, 경제성장, 둘째, 국내외 투자, 셋째, 브라질 제조업의 성장률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브라질 생산구조의 역동성, 넷째, 브라질의 수출입 분석을 통한 대외무역 참여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2015년(-3.55%)과 2016년(-3.31%)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는 2017년에 1.06%, 2018년에 1.1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브라질 GDP는 0.2% 감소했다. 투자분석가와 시장에 따르면 이 발표로 인해 2019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이 2.0%에서 0.9%로 하

[그림 1] 브라질 GDP의 연간 실질 성장률(1990~2018년)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CBB).

향 조정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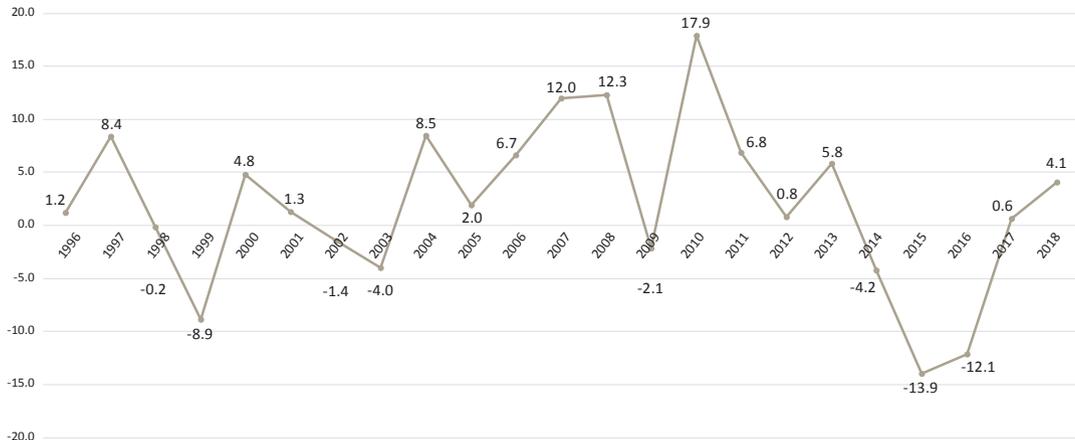
브라질은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과 매우 더딘 회복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보다시피 노동개혁은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의 아주 미미한 성장은 원자재 수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만약 이 부문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매우 크다.

브라질의 심각한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낮은 투자율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브라질의 투자율은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4년(-4.2%), 2015년(-13.9%), 2016년(-12.1%)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이 더 높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25%의 투자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투자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며 브라질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의 투자율 증가는 브라질의 최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과세체계 계산에 대한 회계방식의 변경 때문이며 그 결과 2018년 3분기 투자

1) <https://economia.estadao.com.br/noticias/geral,mercado-reduz-projecao-de-crescimento-do-pib-de-2019-de-1-para-0-93,70002877006>

[그림 2] 브라질 투자의 연간 실질 성장률(1996~2018년)

(단위 : %)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가 인위적으로 증가했다.²⁾

최근 몇 년간 브라질에 대한 투자 감소와 GDP 회복 저조로 인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에 따르면 최근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5%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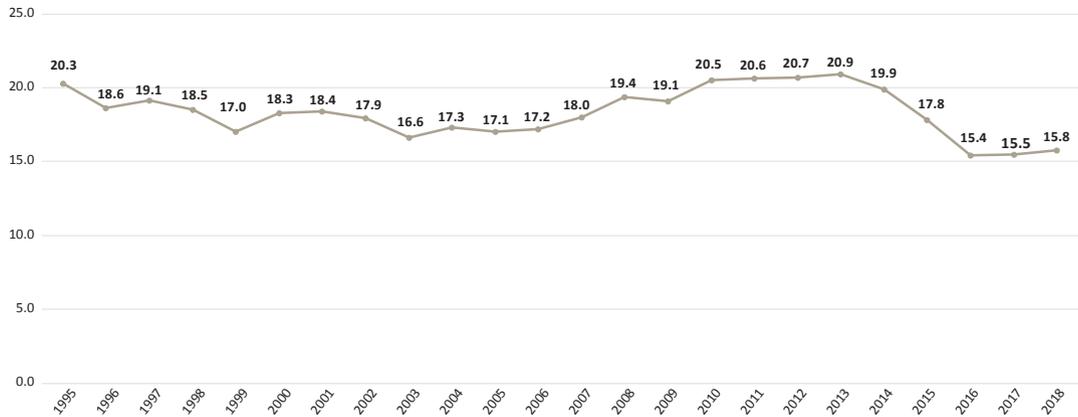
낮은 투자는 브라질의 생산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가 장기적으로 매년 평균 5%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GDP 대비 투자 비중이 25%를 기록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에 직면한 브라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다.

노동개혁 이후에도 이처럼 매우 저조한 국내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는 2014년 870억 달러에서 2015년 600억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약간의 회복세는 그린

2) https://www.correiobraziliense.com.br/app/noticia/economia/2019/03/01/internas_economia,740539/pib-baixo-de-2018-reduz-expectativa-de-crescimento-para-este-ano.shtml

[그림 3] GDP 대비 투자 비중(199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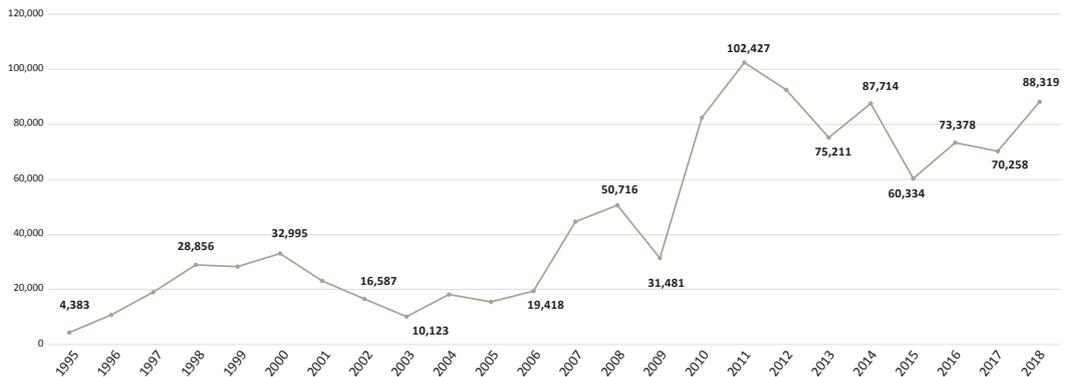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그림 4]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투자액(1995~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CBB).

필드 투자가 아닌 페트로브라스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인 측면이 크다.³⁾ 즉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내수시장의 활력이나 생산구조의 개편을 위한 투자 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최근의 투자는 주로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석유 부문의 기업을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브라질 국내 생산구조가 민영화 과정에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컨설팅업체인 AT커니(AT Kearney)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⁴⁾ 브라질은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순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브라질이 25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12위를 기록한 이후 2년간 각각 16위와 25위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 전까지 기록했던 가장 낮은 순위는 2004년 17위이다.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이 저조함에 따라 브라질 제조업은 역사상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브라질 제조업은 2014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제조업 상황을 고려할 때 2018년에 기록한 낮은 성장률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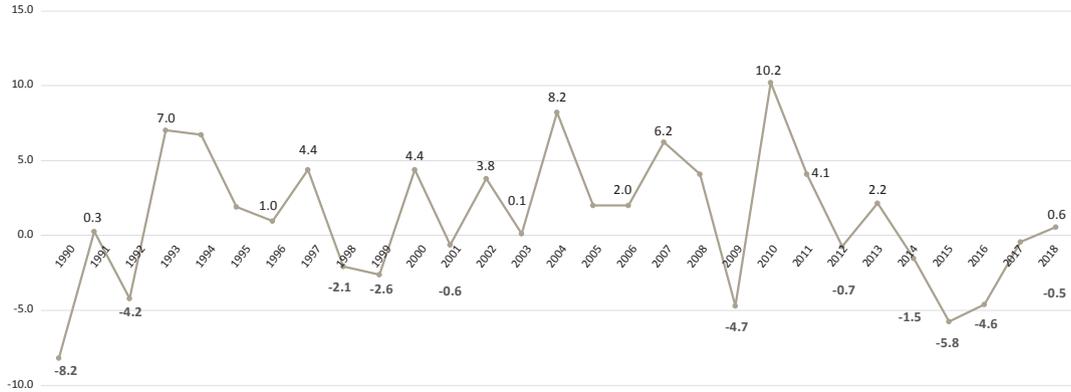
전 세계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브라질의 상황은 더욱 부정적이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 분야가 발전하고 있지만 브라질 제조업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다.

낮은 투자율과 산업침체에 더해, [그림 6]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8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다. 브라질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발전은 물론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는

3)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15/06/1649139-plano-de-negocios-da-petrobras-tem-corte-de-37.shtml>
<https://oglobo.globo.com/economia/petrobras-eleva-meta-de-venda-de-ativos-para-us-269-bi-ate-2023-232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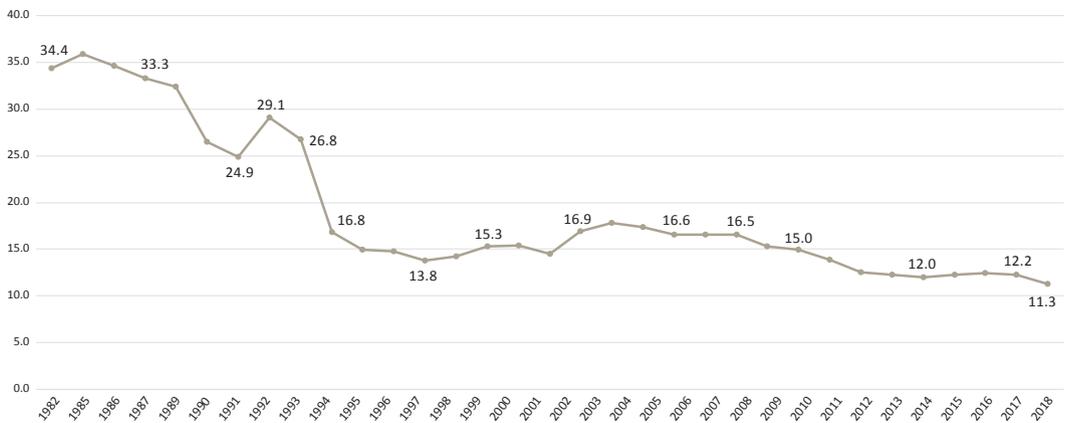
4) <https://www.atkearney.com/foreign-direct-investment-confidence-index>

[그림 5] 브라질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1990~2018년)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그림 6]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변화(198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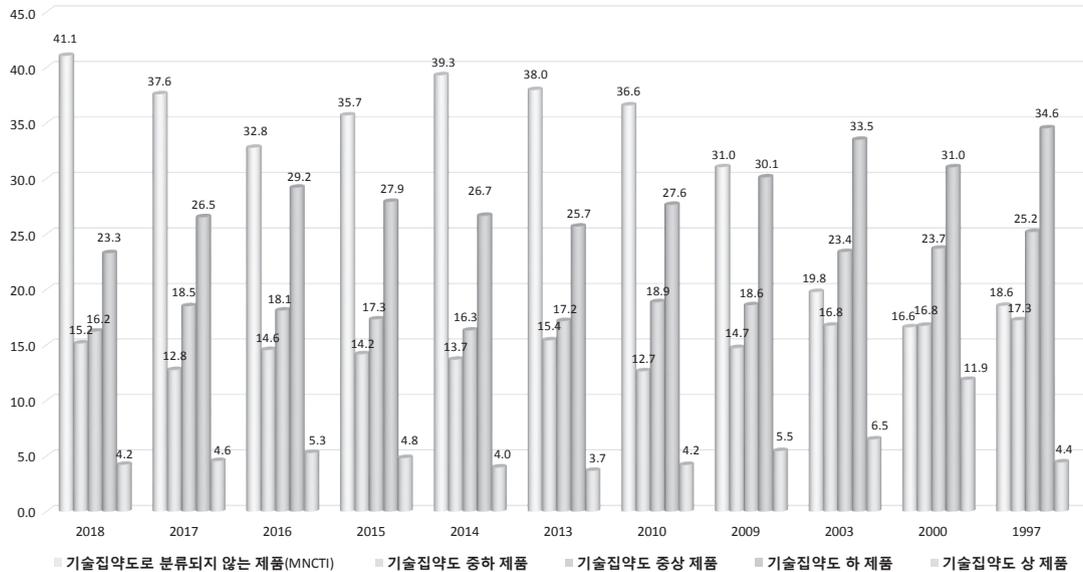
자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IGS).

자연스러운 탈산업화 과정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브라질 생산구조의 취약성은 세계경제 참여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7]에서 기술집약도별 제품의 수출 비중을 보면,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제품의 경우 4%에 불과하며 기술집약도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17%에 불과하다. 반면 기술집약도가 낮은 미분류 제품들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에 미분류 제품을 더하면 이들은 브라질의 수출 중 약 65%를 차지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브라질의 전체

[그림 7] 브라질 총수출 대비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수출 비중(1997~2018년)

(단위 : %)



자료 : 브라질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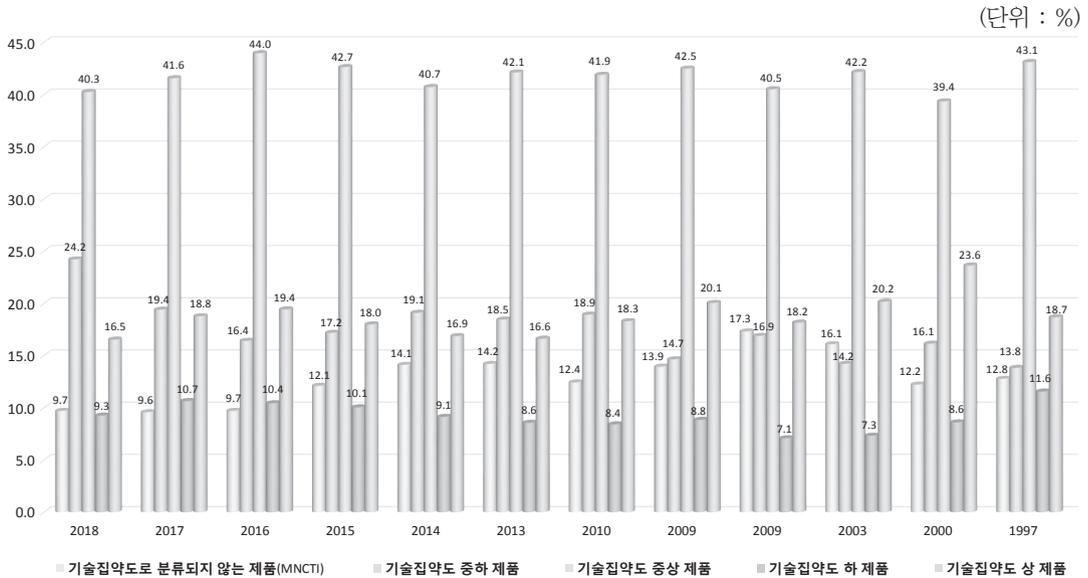
수출 중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는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며 변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수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4.6%에서 2018년 23.3%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하는 지표로서 기술집약도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의 비중이 있는데, 이는 1997년 18.6%에서 2018년 41.1%로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기술집약도 중상에 해당되는 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5.2%에서 2018년 16.2%로 감소했다. 기술집약도 중하에 해당하는 제품의 비중도 1997년 17.3%에서 2018년 15.2%로 감소했다.

즉 이러한 해외무역 지표의 변화는 현재 브라질이 기술집약도에 따라 분류조차 되지 않는 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 속 브라질의 수출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브라질이 수입하는 주요 제품들을 분석해보면 브라질의 세계경제 참여 상황이 어떠한지 더욱 명확해진다. 브라질은 주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세계시장으로 수출

[그림 8] 브라질 총수입 대비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수입 비중(1997~2018년)



자료 : 브라질 산업통상자원부.

하는 반면, 수입에 있어서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기술집약도 중상, 중하, 상에 해당하는 제품이 브라질 수입품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표에 더해, 브라질의 노동개혁이 브라질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2개의 추가 연구가 있다. 첫째는 브라질 전국산업연맹(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NCI)에서 발표한 『브라질 경쟁력 2018~2019』⁵⁾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선정된 18개국 중 브라질은 경쟁력 측면에서 최하위 국가인 아르헨티나만을 앞서고 있다.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주요 지표 중 브라질은 가용성과 인건비에서 가장 큰 진척을 보이면서 2017년 10위에서 2018년 6위로 상승했다. 이 연구는 경기침체, 긴축정책, 노동개혁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5) <https://www.portaldaindustria.com.br/estatisticas/competitividade-brasil-comparacao-com-paises-selecionados/>

기업인들과 브라질 정부가 기대한 바와 달리 인건비 하락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브라질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았다.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브라질 경제가 탄탄한 생산구조를 갖추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브라질의 경제수준을 생산구조가 취약하고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수출하는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만든다.

둘째는 WTO의 연구이다.⁶⁾ WTO는 2018년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브라질의 주요 특징으로 2016년 브라질의 총수출 중 대외 부가가치 제품은 10.2%로 감소했으며 이는 G20의 평균인 16.5%를 크게 하회하는 점, 2005년과 2015년 사이 브라질 수출품에 포함되는 수입 중간재의 비중은 23.5%에서 19.3%로 감소하여 WTO 평균인 45.5%를 크게 밑도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 즉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원자재는 브라질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수입 중간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표와 연구에 따르면 노동개혁을 통해 달성한 저임금 경쟁력은 수십 년 전 브라질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서 차지했던 명예로운 자리를 되찾는 대신, NCI 연구에서 보듯 브라질을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와 같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세계경제에의 참여가 저조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브라질 경제는 식음료, 섬유, 신발 생산처럼 저임금과 낮은 기술집약도의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있어 제한적인 전략이다. 즉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주력하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KLI**

6)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참고문헌

- Baldone, Salvatore; Sdogati, Fabio; Tajoli, Lucia(2007), "On some effects of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on comparative advantages, trade flows and the income of countries," *The World Economy* 30(11), pp.1726-1769.
- Baldwin, Richard E.; Robert-nicoud, Frederic(2004),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A Com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ambridge.
- _____(2010), "Trade-In-Goods and Trade-In-Tasks: An Integrating Framework,"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ambridge.
- Estevadeordal, A.; Blyde, J.; Suominen, K.(2012), *Are Global Value Chains Really Global? Policies to Accelerate Countries Access to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 OECD(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Preliminary Version.